

지구온난화경제시대 봄의 기운이 바뀐다



글 김현진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소식에 국제유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2008년 1월 국제유가는 사상 최초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배럴당 150달러까지 근접했던 국제유가는 올해 초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30달러 중반 대까지 급락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국제유가 세 자릿수 시대는 다시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질서를 논의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도 적지 않지만,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21세기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된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지금 에너지의 세계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급증하는 화석연료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땅 속의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자원의 공급이 더 제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도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경제가 양적 질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제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의 도래를 이야기 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의 이동을 의미하는 저탄소 경제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지난 5~6세기 동안 강대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연구한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저서에서 영원한 강대국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흥망성쇠의 열쇠는 바로 변화 즉,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느냐, 적응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의 富의 지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바뀐다. 일례로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은 富의 세계지도를 다시 그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산업혁명을 놓치고, 러시아는 정보혁명을 놓치면서 상당 기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1987년 출간 이래 20년간 베스트셀러가 된 톰 피터스(Tom Peters)의 저서 '혼돈 속에서의 번영'은 "초우량기업은 없다"는 충격적인 문구로 시작한다. 역사상 초우량기업이 몰락하게 된 원인은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며, 산업의 장(패러다임)이 바뀌면 초우량기업의 조건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녹색 옷으로 갈아입고 뛰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저탄소 경제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주도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차세대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또 한번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NRI**

